

은산별신제 배경설화의 전승양상

강 현 모 (한양대)

< 목 차 >

I. 서론	2. 2기: 백제의식 삽입하기
II. 은산별신제의 전개양상	3. 3기: 백제의식 드러내기
III. 배경설화의 전승양상	4. 4기: 백제의식의 확장하기
1. 1기: 백제의식 잠복하기	IV. 결론

I. 서론

본고는 중요무형문화재 9호인 은산별신제에 나타난 배경설화의 전승양상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은산별신제가 어떻게 변형·전승되어 왔는지 각종의 글과 연구 논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은산별신제에 나타난 배경설화의 전승양상을 검토하겠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서 행하는 은산별신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역사적 경로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으로 전승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를 밝혀줄 문헌기록도 거의 없다.¹⁾ 현재 은산별신제에 대한 최고의 기록은 1935년 3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시행된 별신제를 현지 조사한 오사카(大坂六村)의 보고서이다.²⁾ 이 보고서는 별신당 앞에 모인 인파, 백마

1) 은산별신제를 모셔왔다는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각종 읍지류 등 조선 시대의 각종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충청도에서 행한 대규모 제의로는 웅천의 웅산신당제가 있다(이능화, 『조선무속고』, 『계명』 19, 계명구락부, 1927, 65~79면 참조).

를 탄 장수, 장수기, 산성과 별신당의 전경 등의 사진 자료가 함께 실려 있다. 다음 기록은 유래 설화가 없으나 별신제의 규모, 제의 절차, 경비 조달 문제, 축문 등을 기록한 1938년에 무라야마(村山智聰)의 보고서가 있다.³⁾ 이처럼 은산별신제의 초기 보고서는 일제 시대 일인학자에 의해서 조사 작성되었다.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기록은 부여박물관장이었던 홍사준에 의해 1956년에 작성되었다.⁴⁾ 그는 은산별신제의 유래를 전하면서 별신제의 행사연월일, 행사용 기구류, 인원과 명칭, 행사 절차 및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조사된 『충청남도지』에 수록된 유래담이 있다.⁵⁾ 그리고 1958년에 조사를 하였으나 1987년에 간행한 한상수의 조사 보고 자료가 있다.⁶⁾

은산별신제는 1965년 임동권이 문화재관리국에 조사 보고하여 1966년 2월 15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은산별신제의 유래담이 3편이 수록되어 있다.⁷⁾ 그 밖의 자료로는 79년도에 발간한 『충청남도지』에 유래담 1편이 있고,⁸⁾ 87년도에 발간한 부여군지에 수록된 자료,⁹⁾

2) 大坂六村, 『恩山の別神祭』 『조선』 241(1935. 6), 84~88면. 이곳에 유래담이 2편이 있다.

3) 조선총독부, 『식촌·기우·안택』(국서관행회 1972), 172~184면.

4) 홍사준, 『백제의 전설』(통문관 1956), 71~74면.

5) 충청남도, 『충청남도지』(1965), 665면. 유수복과 유상열님이 1946년도에 제보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6) 한상수, 『충남의 구비전승(하)』(한국예총 충청남도지회, 1987).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최문화의 『충남의 전설집(하)』(충청남도 향토문화연구소, 1986. 3)에 자료가 있다. 이 자료들은 문장체로 바뀌어져 구비전승으로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백제를 강조하던 시기에 발간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7) 임동권, 『은산별신제』,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8호』(1965)=문화재관리국 『문화재』2호(1966. 12)=『한국민속학논고』(집문당, 1971)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은산별신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서 주로 인용되고 있다.

8) 충청남도, 『충청남도지』(1979), 338~339면. 은산면 가중리 김근수님이 1973년에 제공한 자료이다.

9) 부여군, 『부여군지』(1987). 신앙 편에 유래 자료가 4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임동권의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에 있는 자료 3편과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자료 1편이 있다. 후자는 오사카의 유래담 2와 유사하지만 유래담 1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홍사준의 자료를 변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개인연구자들이 잡지나 책에 수록한 자료들¹⁰⁾이 있다.

은산별신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이양수¹¹⁾를 비롯하여 임동권,¹²⁾ 한만영·이보형,¹³⁾ 이필영,¹⁴⁾ 성기영,¹⁵⁾ 주세형¹⁶⁾ 등의 연구와 종합보고서의 성격을 띤 1997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한 『무형문화재 예능조사 연구보고서 제249호』¹⁷⁾와 1998년에 조사한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종합실측조사 보고서』¹⁸⁾가 있다.

-
- 10) 박계홍, 「백제와 오늘을 잇는 은산별신제」 『뿌리깊은나무』 1976년 6월호(1976. 6), 정병호의 「은산별신제」 『공간』 17권 7호, 공간사, 1982. 7), 임동권·최명희의 『한국의 굿, 은산별신제』(열화당, 1986), 강성복의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부여문화원, 1997) 등이 있다.
- 11) 이양수, 『은산별신고』(부여향토문화연구소회, 1969) 은산별신제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다.
- 12) 임동권, 「은산별신제」, 『한국민속학논고』(집문당, 1971)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3편의 유래담은 뒤의 연구나 각종 기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13) 한만영·이보형, 「은산별신제의 음악적 연구」, 『민족음악학』 창간호(서울대학교 음악학과, 1978. 1) 『예·축제·제사(6)』, 『민속학자료총서』 382(우리마당 터, 2003) 은산별신제의 음악적인 측면에서 연구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4) 이필영, 「은산별신제」, 『비교민속학』 13집(비교민속학회, 1996. 4) 『굿 종류(5)』, 『민속학자료총서』 382(우리마당 터, 2003) 『예·축제·제사(4)』, 『민속학자료총서』 244(우리마당 터, 2002) 은산별신제의 생성 시기에 대해 유래담에 나타난 백제 말기라는 도식적인 연구가 아닌 지역의 사회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제의와 유래담의 변천양상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롯되어 은산별신제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이룩하게 된다 『은산별신제』 화산문화, 2002. 12).
- 15) 성기영, 「은산별신제의 역사적 전개와 전통 창출」(안동대 대학원 민속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16) 주세형, 「오태석 회곡 「배마강 달밤에」에 나타난 은산별신굿의 수용양상」(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
- 17) 하효길·김선풍,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7) 하효길은 은산별신제가 고유마을 제사에 장병의 위령제가 복합된 것이라며 그의 제의 형태와 절차, 기능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김선풍은 유래담을 분석하고 강릉단오제와 비교를 통하여 꿈의 의지, 별신제의 주신 문제 등을 검토한 뒤 별신제의 제일과 제의 절차 및 장군축문 등을 검토하였다. 이중 김선풍 교수의 글은 「은산별신제의 민속학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예·축제·제사(4)』, 『민속학자료총서』 244(우리마당 터, 2002)에 재수록 되어 있다.
- 18) 하효길외 4인,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종합실측조사 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8) 하효길은 1년 전의 보고서를 확대하여 별신제의 유래와 제의영역에 대해, 그리고 양중승은 무속영역의 측면을, 이병옥은 무용영역의 측면을, 이보형은 음악영역의 측면을, 그리고 박성실은 복식영역의 측면을 검토하였다.

이런 각종 기록이나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유래담의 전승양상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편이라고 하겠다. 즉 이필영의 연구서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활용자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김선풍은 유래담의 분석을 통한 의미를 해석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 나온 각종 기록의 나타난 은산별신제에 나타난 배경설화의 전승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은산별신제의 전개양상

본 장은 은산별신제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며 형성되었는가의 역사적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나타난 제의의 양상을 통해 은산별신제의 전개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무라야마의 기록을 보면 은산별신제는 최소한 1900년대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은산별신제는 그가 보고할 당시보다 40여 년 전인 1900년대에 매년 거행하다가 경비상의 문제로 3년에 1번씩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이런 은산별신제의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935년에 오사카(大坂六村)가 현지 조사한 보고 자료이다. 오사카의 의하면, 은산별신제는 1935년의 3월 16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되었는데, 대개 3년마다 음력 2월 중에 택일하여 일주일 간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때 은산 부근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산과 공주, 정산 등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은산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별신당은 당산성 아래에 기와집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²⁰⁾ 당집 안의 모습은 정면에 산신 탕화가 있고 그 좌우에 당제에 필요한 제기들과 깃발이 놓여 있을 뿐이다. 당시는 현재 당집 중앙 좌우의 있는 장군 영정이 없었

19) 이때 은산별신제의 제의 형태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 은산별신제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산신제와 별신제가 결합되어 내려온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20) 별신당에 놓여 있는 초석을 보고 삼 칸의 당집이었음을 추정하였다.

던 것 같다.²¹⁾ 이는 홍사준의 글에 산신령이 범을 안고 있는 족자만 언급하고 장군 영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²²⁾

은산별신제는 1930년대 중·후반에 걸쳐 제의가 대규모로 확대되어 모셔졌다.²³⁾ 그런데 규모가 커지던 은산별신제는 일제 말기인 1940년대 전반에 치안확보·식량부족·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²⁴⁾ 진행될 수 없었다. 해방 후에도 별신제를 지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다만 1947년에 기금을 모아 신신당을 중수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경제적 여건으로 지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산신당중수기」에는 은산별신제의 배경설화가 상당히 변화되어 있다. 은산별신제의 배경설화가 백제 말기의 장군 귀실복신(鬼室福神)의 고사를 모방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²⁵⁾ 중수기에서 백제와 연관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이곳 은산리는 백제 시대의 전쟁터이었고, 그 전망장졸의 원혼이 흩어지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재앙이 뒤따랐는데, 이를 진정시키고 복을 구하기 위하여 신당을 건립하여 토지신족자(土地神簇子)를 정면에 봉안하고 그 좌우에 고명장의 화폭을 모시고 제사를 모셨다. 또한 매년 정초에 이들 신령에게 제를 모시고, 삼 년에 한 번씩 별신대제를 모셨다’고 하였다. 그런데 좌우에 모신 고명장을 복신과 도침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1956(병신)년의 장군축문에 조선 장군들이 등장하지만 복신이나 토진대사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1961(신축)년 장군축문에서 비로소 백제의 복신장군과 토진대사 외 삼천신위²⁶⁾에 대

21) 오사카는 신선상 좌우의 장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22) 은산별신제에는 막연한 백제의 장군에 대한 추모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로 보아 당시까지는 민중들 사이에 백제의식이 없었던 것인지, 백제에 대한 이중적 잠재의식이 나타난 것인지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23) 이능화의 조선무속이나 기존의 각종 읍지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즉 이곳은 조선시대 은산역이 설치되고 시장기능이 강화되면서 별신제의 규모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4) 이필영, 앞의 책, 32~33면.

25) 오사카(大坂六村), 앞의 논문, 87면.

26) 1961년 별신제 장군축문, 維歲次 辛丑正月辛卯 朔十四日甲辰 恩山洞頭將軍 000 (생략)

해 언급되는데, 은산별신제의 배경설화에서도 처음으로 백제의 전물장병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은산별신제는 1959년 별신대제를 지낸 이후에 지방 유지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지만,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까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은산별신제는 1966년 2월 15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받게 되는데, 이는 1965년 10월 백제문화제가 관 주도로 바뀌면서 은산별신제가 은산별신굿으로 삼층제와 궁녀제와 함께 참가하여 부각되고 각광받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²⁸⁾ 즉 은산별신제가 ‘전국에 가장 큰 별신제이며, 토속적인 수호제로서의 장군제가 습합된 종합제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며, 기원이 백제의 멸망과 관계되어 있어서 그 사실이 고증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승보존이 시급하다’²⁹⁾고 하였다.

은산별신제가 공연 형식으로 처음 공개된 것은 1958년 8월에 개최된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이다. 이때 민속놀이 부분에 은산별신굿으로 참여하였으나 수상하지 못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은산별신굿으로 3차례 더 참여하였다. 1966년 10월 서울 남산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제7회 대회에서 장려상을, 1968년 10월 대전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9회 대회에서 문공부장관상을, 1969년 10월 대구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10회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은산별신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1969년에 대제를 거행하였고, 1970년 백제문화제에 참여하였다. 수해와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1972년과 1974년 행사를 치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은산별신제는 1976년 이후 각종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재원으로, 대제와 소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격년제로 거행하고 있다. 즉 짝수 해에는 대제를, 홀

中央皇帝將軍 福信將軍 土進大使外 三千神位 (후략)

27) 임동권, 앞의 책, 192면.

28) 이양수, 앞의 논문, 8면.

29) 임동권, 「은산별신제」,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8호』(1965), 5면.

수 해에는 소제를 규칙적으로 치러왔으며, 부여에서 행하여지는 백제문화제에 출연하여 본제 행사를 재현하고 있다.

오늘날 중요무형문화재 9호가 된 은산별신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 사단법인 은산별신제보존회가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 설립되어 있다. 은산별신제보존회는 1977년 7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1978년 1월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1986년에 중요무형문화재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1990년에 국고의 지원을 받아 전승현장에 은산별신제 전수회관(137평)을 건립하였고, 별신당 (7.3평)을 증축하여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곳도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젊은 인구의 이농현상으로 보존 전승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라 하겠다.

Ⅲ. 배경설화의 전승양상

은산별신제는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진행된 백제부흥운동에서 장렬하게 죽은 장졸에 대한 위령제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비전승 되고 있는 배경설화(유래담)에서도 별신제의 구조와 성격과 마찬가지로 백제부흥운동에서 전몰한 장병들을 위로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모든 자료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하여 백제 전몰장병들의 위령제 성격으로 나타난 전승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지금까지 조사된 은산별신제 배경설화의 조사나 발간 연대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⁰⁾

설화1 오사카(大坂六村), 『愿山の別神祭』, 『조선』 241(1935. 6), 87면

설화2 오사카(大坂六村), 『愿山の別神祭』, 『조선』 241(1935. 6), 87~88면

30) 이필영, 김선풍, 하효길 등의 연구에서 입동권의 자료를 그대로 또는 극히 일부만 변형하여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 수용한 자료들은 연구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4기에 해당하는 차진용과 강성복의 자료는 이곳에 언급하지 않았다.

- 설화3 충청남도, 『충청남도지(하)』(1965), 665면(1946년 조사).
- 설화4 이희순, 「산신당 중수기」(1947).
- 설화5 홍사준, 『백제의 전설』(통문관, 1956), 72~74면³¹⁾
- 설화6 한상수, 『충남의 구비전승(하)』(한국예총 충청남도지회, 1987), 180~181면(1950년 조사).
- 설화7 최문화, 『충남의 전설집(하)』(충청남도 향토문화연구소, 1986. 3), 523~525면
- 설화8 임동권, 「은산별신제」, 『한국민속학논고』(집문당, 1971), 189면.
- 설화9 임동권, 「은산별신제」, 『한국민속학논고』(집문당, 1971), 189면.
- 설화10 임동권, 「은산별신제」, 『한국민속학논고』(집문당, 1971), 189면.
- 설화11 한만영·이보형, 「은산별신제의 음악적 연구」 『민족음악학』 창간호(서울대 음악학과, 1978), 63면.
- 설화12 임동권·최명희, 『한국의 굿, 은산별신제』(열화당, 1986), 75면.
- 설화13 충청남도, 『충청남도지(하)』(1979), 338~339면
- 설화14 박계홍, 「백제와 오늘을 잇는 은산별신제」 『뿌리깊은나무』 1976년 6월호
- 설화15 박계홍, 황인덕, 「민간신앙」, 『부여군지』(부여군 1987), 1041면
- 설화16 정병호, 「은산별신제」, 『공간』 17권 7호 (공간사 1982. 7), 121면

위에 제시된 은산별신제 배경설화의 전승양상을 시기적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초기의 일인학자에 의해 보고된 1930년 후반이다. 둘째는 『충청남도지(65)』, 이희순의 「산신당중수기」, 홍사준의 조사 등 한국인들에 의해 조사된 1950년대 이전이다. 셋째는 은산별신제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설정된 1960년대 중반일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일반인에게 알려 보급을 확대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시기가 크게 나누어진다. 은산별신제 배경설화의 전승양상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1) 이 자료는 1964년에 발간된 『부여군지』에 변형되어 수록되어 있다(769~770면). 자료는 조사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별신당의 장군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오사카의 보고서와 같아 「산신당중수기」보다 앞선 시기로 보인다.

1. 1기 : 백제의식 잠복하기

이 시기는 초기 조사인 1935년에 조사된 배경설화의 문면에 백제 혹은 백제부흥운동의 전몰장병들을 위한 위령제라는 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설화에는 장군의 지칭이나 백제란 나라 명칭이 나타나지 않고, 추상적으로 어떤 나라의 장군으로 지칭되어 나타나 있다.

[설화 1]

옛날 이 지방에는 별신이란 장군이 있었다. 언젠가 나라에 대난이 났을 때 그의 의견이 쓰여지지 못 했다. 도리어 그는 나라 사람의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장군의 영혼은 악귀가 되어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후세에 그 나라 사람들은 장군의 위대함을 깨닫고 제사를 지내 영혼을 위로했다.

이 설화는 별신이란 장군을 진혼하다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추론할 근거가 전혀 없다. 즉 별신이란 장군이 어느 시기, 어떤 나라, 장군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³²⁾ 더욱이 별신제를 지내면서 읽은 병자년 장군의 축문에는 96명의 장수가 등장하고 있는데 백제의 장군 이름이 1명도 없다. 이곳에 등장한 장군으로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부터 명에 이르는 중국의 장군이 89명이고, 조선의 장수로 임경업, 이순신, 유성룡, 김덕령, 곽재우, 이완, 장봉익 등이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 전설과 유사한 내용이 논산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마낭바위」에 관한 전설이다. 「마낭바위」 전설에서 장군은 간신의 모함으로 낙향하여 국가를 걱정하고 있다가,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 계시와 말 한 필을 주었다. 그 말을 타고 장정들을 모아 혼란하다가 침입한 적군을 물리치고 최후에 전사하였다. 그곳에 말의 불알과 말굽 자국이 남아 있어 명명하게 되었는데, 그 장수를 위해서 해마다 제사를 바쳤다³³⁾는 것이다.

32) 서울지역의 부군당에 나타난 부근신이 남성 성기에서 비롯되는데, 당집에 가서 조사하면 장군신으로 모셔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위 설화에는 「마냥바위」 전설과 달리 충신이 간신들의 참소로 죽었고, 죽은 영혼이 적을 물리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죽은 원혼이 등장할 때는 원한을 갚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마냥바위」 전설은 나름대로의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위 설화와 같이 장군의 위대함을 알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도 같다.

그런데 「마냥바위」 전설과 오사카의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위 설화의 별신이란 장군은 백제와 관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있다. 즉 오사카는 은산별신제에 대한 유래담이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백제 말기의 장군 귀실복신(鬼室福禰)의 고사가 전해진다³⁴⁾고 소개하였다. 위 설화에는 백제란 구체적인 나라와 장군을 지칭되지 않았지만, 이곳의 민중들 사이에 이미 암묵적인 암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백제나 백제 장수의 부흥운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배계층의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이다. 예로 60~80년대 까지만 해도 전라도 지방에서 우투리와 동구리 전설이나, 부여 지방에서 이몽학 전설을 구연하기를 꺼려하였다.³⁵⁾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백제란 나라 이름이나 장수를 넣는 것보다 이를 드러내지 않고 묵시적으로 행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효과

33) 사재동, 「구비전승」, 『충청남도지(하)』(충청남도, 1979), 296~297면. 이는 논산군의 「탈피의 전통」(1981)에도 수록되어 있다.

34) 「설화 2」 오사카, 전제논문, pp.87~88. 이 제사의 유래에 대해 은산 지방 사람들의 설이 다양하다. 이곳은 백제 말기의 장군 귀실복신의 고사가 전하고 있다. 즉,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백제의 유신들이 은산을 근거로 의병을 봉기하여 맹렬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특히 현재 예산군 대흥면의 임존성에 근거하여 백제 왕족 귀실복신이 최고로 용감하여 나당군을 공격하여 국도(수도)를 회복하려고 도모했다. 또 일방으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왕자 풍장을 맞아드려서 왕으로 삼았다. 일본의 지원군을 얻어 위세가 크게 성장했는데 왕 풍장과 간국이 생겨 드디어 사살되었다. 그런 연유로 백제는 가장 우수한 장군을 잃게 되었고, 드디어 적이 그 승기를 타고 일거에 근거지를 공격하니 멸망의 운명을 보게 되었다. 복신의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이곳 지방 사람들은 복신의 황사에 대해 심한 비극적인 정정을 느꼈다. 이 별신제는 복신의 위령제로 칭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의식은 무라야마의 앞의 보고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35) 강현모, 『장수설화의 구조와 의미』(역락, 2004), 26면.

적으로 별신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³⁶⁾

2. 2기 : 백제의식 삽입하기

2기는 은산이나 부여지방 그리고 충청지역이라는 지역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시대적으로 배경설화에 백제란 용어나 장군의 명칭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별탈이 없었고, 지역적 의식을 부각시킨다는 사명의식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다. 따라서 2기는 배경설화의 표면에 백제의식을 삽입하여 드러내려고 시도한 시기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에 이어 아직도 백제의식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설화 5]

1. 은산은 물론 군내에 전염병이 들어 모든 마을이 전멸할 지경이었다.
2. 90살 노인의 꿈에 5~60세의 훌륭한 장군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다.
3. 장군은 옛적 어느 나라 장수라 소개하고, 이곳이 전쟁지로 군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나와 이들의 해골을 묻어 주면 병마를 낮게 해 주겠다 하였다.
4. 장군은 자신과 군사들이 묻힌 곳을 알려주고, 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부탁하고 떠나다.
5. 노인은 동리사람에게 꿈 이야기와 묻힌 해골을 안장할 것을 말하였다.
6. 동리사람들은 노인의 명령대로 하고 제수를 차리고 제사를 올렸다.
7. 위령의 제사를 지낸 뒤 병은 씻은 듯 없어졌다.
8. 이 제사 이름은 별신이라 부르고 삼 년에 1 차례 성대히 지내게 되었다.
9. 만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유행병이 일어나 사람을 많이 죽었다고 한다.

36)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일조각, 1981), 124~130면. 백제설화의 해석을 위해서는 문면이 나타난 대로 해석하면 지배자적 입장에서의 해석이고, 그 저층에 깔려 있는 이면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 백제설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일제 말기에 은산별신제의 개최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일본 장수의 이름까지 장군축문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임동권, 『한국민속학논고』 200면).

위 설화가 백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은 1기의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설화를 서술하기에 앞서 은산별신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백제시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설화 속에 어느 나라 장수'라는 말은 백제의 장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설화만 단독으로 보았을 때는 추상적이지만, 설화 앞뒤의 설명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설화 속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은산별신제의 「산신당중수기」이다. 중수기의 중간에 보면 '은산리는 옛날 백제의 전장지니, 그 전쟁에서 죽은 장수와 병졸들의 원통하고 분한 혼백들'이라고 하여 백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양쪽 벽에 고명장의 화폭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명장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화폭의 장수는 백제의 장수임이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1946년도 조사하여 1965 년도의 『충청남도지』에 실린 자료에는 백제의 장수가 등장하고 있다. 자료에는 백제가 멸망한 뒤에 병마에 시달리는 이곳에 갑옷을 입은 장군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 백제의 장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별신당 안에는 '산신령과 호랑이가 있는 족자 셋이 걸려 있다'고 하였다. 이때 족자 셋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어떤 족자인지를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전하고 있는 양쪽의 장군상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백제 그리고 백제 장군의 모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자료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947년의 「산신당중수기」에는 산신당이 허물어져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중수하였다고 한다. 이때 산신당은 산신당이 아닌 별신당이라³⁷⁾ 하였을 때 오차가 생긴다. 「산신당중수기」에는 당에 모신 영정에 대해 나라와 백제 장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보다 1년 전에 조사된 「충청남도지」에 실린 자료에 백제라고 구체화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충청남도지』의 자료가 1946년에 조사되었다고 하지만, 발간 연대가 1965년이란 점

37) 이필영, 앞의 책, 33면. 주26 참조.

지역의 일반 주민을 상대로 작성된 지방지란 점,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와 관련시키려는 시대적 조류였던 점에 의해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³⁸⁾

3. 3기 : 백제의식 드러내기

은산별신제의 유래담에 백제의식 드러내기는 초기의 오사카 자료 2인 「설화 2」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설화 속에 백제의식을 삽입하기의 노력은 「설화 4」인 「산신당중수기」나 「설화 5」인 홍사준의 자료 등에서 계속되었다. 이런 노력은 제3기인 1960년에 중반에 더욱 치열해진다. 따라서 자료 속에 백제의식 삽입하기를 넘어 드러내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충청남도지(65)』를 비롯하여 임동권의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임동권의 자료는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선택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 중에 역사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은산별신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백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기에 이른 것이다.³⁹⁾ 따라서 이 시대의 자료들은 백제의식 드러내기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충청남도지(65)』는 물론이고 임동권의 자료들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임동권의 자료는 은산별신제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인용되는 배경설화로 확정되기에 이른다.

[설화 9]

옛날 은산은 역촌이었는데 청년은 17~8세면 득병하기가 일수이고 가축도 낳아서 3개월이면 죽는 일이 많았다. / 어느 날 은산의 한 노인이 잠시 잠이

38) 이는 오사카의 보고서나 홍사준의 자료에는 없던 장군상이 「산신당중수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된다.
 39) 부여지역은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속 전반에 대해 반영되어 있다. 공동체적 민중의식의 표상으로 특히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에 관한 설화들이 많이 있다.

들었는데 꿈에 노장군이 나타나 자기는 백제의 장군인데, 나의 백골이 모처에 흩어져 있으니 잘 묻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 꿈에서 깬 노인은 죽은 백제장군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승전의 흥을 내는 별신제를 지내게 되었으며 별신할 때에 군복을 입고 승마하며 진치듯 5방도는 까닭도 여기에 있고 산제는 매년하다 경비가 많이 드는 별신은 3년 만에 한 번씩 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은산리 김종대씨의 이야기).

[설화 10]

옛날 은산은 진터였다. 큰 난리가 나서 이곳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를 했다. 마을사람들은 죽은 장병들의 영을 위안하기 위하여 별신을 지내게 되었으며 별신을 지낸 후로는 동네가 태안하고 모두 무병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은산리 윤상봉 씨의 이야기).

위 자료들은 임동권의 보고서에 있는 자료 3편 중에 2편이다. 보고서의 맨 앞에 있는 자료는 앞의 1기와 2기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 수록된 자료들은 백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동권은 은산별신제가 ‘역사적으로 백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임동권의 주장은 뒤의 연구들이나 각종 글의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⁴⁰⁾ 더욱이 이 시기는 충청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연관된 백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는데, 은산별신제에도 이런 점이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그 근거로 이 지역의 향토지인 『충청남도지(79)』, 『부여군지(64, 87)』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시기의 자료들은 설화의 표면에 제시된 나라를 백제로, 그 시기를 백제부흥운동으로 설정하고 있다. 위 자료에서는 백제로만 나타나 있지만

40) 한만영·이보형, 앞의 논문, 63면 등과 같이 연구 논저에 임동권의 자료를 수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한편 명확하지 않지만 임동권의 주장은 은산별신제가 백제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뒤의 연구자들이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별신제의 역사적 배경이 백제와 연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필영은 은산별신제의 생성 시기를 동계에서 비롯되었다가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백제와 관련된 별신제가 결합되었다며, 그것이 19세기 후반 혹은 20세기에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뒤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 백제부흥운동기라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산신당 중수 이후에 모셔진 장군상이 복신장군과 토진대사라는 점 등이다. 특히 『충청남도지(79)』에는 복신과 도침이 부흥운동을 하다가 내분으로 은산별 싸움에서 패배하여 부흥운동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그들의 원한을 해결해 주는 별신제를 지냈다⁴¹⁾고 한다.

이처럼 이 시기의 설화에는 나라를 백제로, 인물을 복신장군과 토진대사로 설정하여 백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4. 4기 : 백제의식의 확장하기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은산별신제의 배경설화에 대해 백제의식 드러내기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충청남도지』와 『부여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상수의 『충남의 구비전승』, 최문화의 『충남의 전설집』, 그리고 박계홍의 『뿌리 깊은 나무』나 정병호의 『공간』, 임동권의 『한국의 곳, 은산별신제』, 차진용, 『교본은산별신제』, 강성복,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등이 있다.

이들 중에 박계홍, 정병호, 임동권의 자료들은 기존에 조사한 자료를 나름대로 재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읽기 쉽게 문장체로 전환하고 논리적으로

41) 『설화 13, 『충청남도지(79)』 ‘복신은 왕족으로 도침은 승려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자 임존성(지금의 대흥)과 주류성(지금의 한산)을 중심으로 백제의 부흥을 위한 항쟁을 일으키며 이를 지도하였다. 이들이 이끄는 부흥군은 한때 위세가 당당하여 여러 성을 지배하였으나 결국 내분으로 인하여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이곳 은산벌에서의 싸움을 끝으로 백제의 부흥은 수포로 돌아갔다. / 그 후에 이 마을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하루에도 수백 명씩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동네의 한 할아버지의 꿈에 갑옷을 입은 늙은 장수가 말을 타고 노인 앞에 나타나 “은산은 아깝게 죽은 군사들이 부모처자를 잊지 못하여 눈을 감지 못하고 있으니 군사들의 유골을 잘 정리해서 좋은 곳에 묻으면 보답으로 질병을 없애주겠다.”고 하였다. 노인은 동네 사람들과 의논하여 꿈에 나타난 장수의 말대로 군사들의 유골을 잘 묻어주고 제사를 지냈다. / 그 후로부터 질병이 사라지고 동네가 평안하여지자 후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니 이것이 별신굿의 기원이 되었다 한다.’(1973. 8. 20, 부여군 가중리 김근수 제공, 이상기 수집)

정리하였다. 이런 점은 『충청남도지』나 『부여군지』에 실려 있는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재정리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한상수는 현지조사 자료를 발간된 시대적 공간이란 초점에 맞추어 재정리하여 구조화하였고, 최문화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백제의식을 확산하려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재구하였다. 이 밖에 차진용의 자료는 은산별신제의 전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찬하였고, 강성복의 자료는 부여문화원에서 넓게 읽히기 위해 재정리되었다.

이 시기의 자료가 보여주는 특징은 문장체로 정리되어 있고, 기존의 자료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백제의식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은산별신제의 배경설화가 확정되면서 더 이상 크게 변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은산별신제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역민들에게 각인된 배경설화가 도식화되어 전승되어 왔다고 하겠다.⁴²⁾

IV. 결론

부여군 은산에서 거행되는 중요무형문화재 9호인 은산별신제 배경설화의 전승양상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오사카의 1935년 보고서 이후에 은산별신제에 대한 언급한 많은 글들은 제의적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소개한 배경설화의 전승양상을 고찰하였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산별신제의 전개양상을 보면, 은산별신제는 무라야마의 보고서에 의해 1900년 이전에 대체로 마을제의인 산신제의 형태를 띠고 매년 거행하

42) 연구자는 은산별신제에 대해 2번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979 년도와 1999 년이다. 1979 년도는 한남대 국어국문과 하기정기학술답사 때에 청양지역을 조사하는 도중에 최래옥 교수와 함께 유상열翁을 조사하였고, 1999년에는 부여군의 지명유래를 조사하는 도중에 윤씨 할아버지를 조사하였다. 현재 테이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설화의 내용은 앞의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였던 것 같다. 이런 것이 별신제와 결합되면서 경비 문제로 3년 한 번씩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1935년 별신제를 지냈음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오사카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은산별신제를 현지 조사한 것으로 백제와 관련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심지어 이 당시의 장군축문에는 96명의 장군이 등장하지만 백제의 장수는 1명도 없고, 대부분 한족의 장군이며 우리나라 장수로 조선시대의 장수 7명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별신제가 점차 백제와 관련을 강조하면서 변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지방적 특색을 드러내면서 이곳의 역사적 배경인 백제와 결부시키고 있다. 따라서 1961년 별신제의 장군축문에 와서야 비로소 복신장군과 토진대사(도침)와 삼천신위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은산별신제는 중요무형문화재 9호가 된 이후에 공연 형식의 제의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형태로 오늘날까지 제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경설화의 전승양상을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우선 1기인 백제의식의 잠복하기는 주로 일인학자에 조사되었던 초기의 자료에 많이 나타난다. 이들 보고서에도 설명에서 백제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배경설화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의식은 백제의식 삼입하기인 2기의 1950년 전후의 한국인에 의해 조사된 초기 자료에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2기의 자료에는 배경설화의 앞뒤에 증시부 형태로 백제의식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백제의식 드러내기인 3기의 1960년대 들어와서 배경설화는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면서 백제란 역사적 배경과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의 선정 기준 중에 역사적 전통적이란 점, 그리고 지역적 특징을 강조한 지역적 향토지의 발간이란 점에서 더욱 백제의식 드러내기로 발전하기 이른다. 그 결과 은산별신제는 중요무형문화재 9호가 되었고, 특히 백제문화재와 결부되면서 배경설화의 백제의식 드러내기가 확산되기에 이른다. 한편으로 이를 통하여 배경설화의 고착화 현상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백제의식 확산하기인 4기의 1970년대 이후에 배경설화에는 당연히 백제의 복신장군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특징

은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글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은산별신제 연구 논저에서도 3기에 활용하였던 배경설화의 자료들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설화에 나타난 전승양상의 검토는 추후 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산별신제에 나타난 문학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작업으로 제의 중에 읽는 축문(산신제이나 장군)이나 무속의례에서 불린 무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은산별신제, 전승양상, 백제, 동제, 백제의식, 배경설화

< 참 고 문 헌 >

- 부여군, 『부여군지』, 1964, 1987.
 충청남도, 『충청남도지』, 1965, 1979.
 이의순, 『산신당 중수기』, 1947.
 임동권,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8호(은산별신제)』(1965) = 『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1971.
 차진용, 『교본 은산별신제』, 은산별신제보존회, 2000.
 강성복,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부여문화원, 1997.
 박계홍, 『백제와 오늘을 잇는 은산별신제』, 『뿌리깊은나무』 1976년 6월호,
 성기영, 『은산별신제의 역사적 전개와 창출』, 안동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양수, 『은산별신고』, 부여향토문화연구회, 1969.
 이필영, 『은산별신제』, 『비교민속학』 13집, 비교민속학회, 1996. 4.
 이필영, 『은산별신제』, 화산문화, 2002. 12.
 임동권·최명희, 『한국의 곳, 은산별신제』, 열화당, 1986.
 정병호, 『은산별신제』, 『공간』 17권 7호, 공간사, 1982. 7.
 최문화, 『충남의 전설집(하)』, 충청남도 향토문화연구소, 1986. 3.
 한상수, 『충남의 구비전승(하)』, 한국예총 충청남도지회, 1987.
 하효길·김선풍,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249호, 문화재관리국, 1997.
 하효길외,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종합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8.
 한만영·이보형, 『은산별신제의 음악적 연구』, 『민족음악학』 창간호, 서울대학교 음악학과,

1978.

홍사준, 『백제의 전설』, 통문관, 1956.

무라이마(村山智順), 『석존·기우·안택』, 조선총독부, 국서관행회, 1972.

오사카(大坂六村), 『恩山の別神祭』, 『조선』 241, 1935. 6.

K C I

[Abstract]

The Transmission Pattern of the Background Folktale of Eunsanbyeolsinje

Kang, Hyenmo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transmission pattern of the background folktale of Eunsanbyeolsinje(은산별신제),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9. There have been many writings on the cultural heritage since Osaka's(大坂六村) report in 1935 but no research has been made on the transmission pattern of the background folktale.

Eunsanbyeolsinje was originally held as an annual village ritual offered to the god of mountains, but as it was merged with Byeolsinje it was held once in every three years for financial reasons and developed into a ritual related to Baekje.

The transmission of the background folktale is largely divided into four stages : embracing the Baekje ritual in the mid 1930s, inserting the Baekje ritual in the early 1950s, exposing the Baekje ritual in the mid 1960s, and spreading the Baekje ritual in the mid 1970s and afterward. In this way, the background folktale has been transmitted in a way of reinforcing the Baekje ritual according to change in the ritual pattern of Eunsanbyeolsinje.

Research on the transmission pattern of the background folktale is a preparatory work for studying the narrative structure and meanings of the folktale, and it needs to be executed together with research on the literary aspect of Eunsanbyeolsinje as well as on the background folktale, prayers (Sansinje and Janggun) and shaman songs.

Key words : Eunsanbyeolsinje, transmission pattern, Baekje, village ritua, Baekje ritual, background folktale

강현모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강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500
성원상떼빌 204-204
전자우편 : mokh57@Korea.com

K C I